



# 10경기에 5홈런 강정호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중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 장거리 타자로 돌아와...마무리 투수 150km대 볼 '평평' 넘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홈런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강정호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0-3으로 끌려가던 9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정호는 애틀랜타 마무리투수 아로디스 비스카이노의 시속 155km 직구

를 때려 왼쪽 담장을 넘겼다. 비록 팀은 1-3으로 졌지만, 강정호는 올 시즌 10경기 만에 시즌 5호 홈런을 날렸다. 작년 강정호가 5호 홈런을 친 건 7월 18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을 2개월이나 단축했다. <마무리 투수에게 '공포의 존재' =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데뷔 홈런은 작년 5월 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나왔

다. 당시 강정호는 0-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9회 트레버 로준솔의 커브를 때려 극적인 동점 홈런을 만들었다. 이후 강정호는 수차례 상대 마무리 투수를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9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는 7-7 동점 9회초에서 글렌 퍼킨스를 상대로 앞서가는 솔로 홈런을 쳤고, 9월 2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는 3-7에서 데이비드 고프로부터 솔로 홈런을 뽑았다.

마무리 투수에 강한 모습은 올해 더욱 두드러진다. 16일 시카고 컵스전에서는 1-0으로 앞선 9회초 상대 마무리 투수 헥터 룬돈의 시속 155km 강속구를 때려 쉐기 홈런을 터뜨렸다. 이날 비스카이노로부터 뽑은 홈런 역시 시속 155km짜리 강속구였다. 마무리 투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피홈런이다. 경기 막판 홈런 한 방은 결과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구 때려 홈런만 3개, 타율은 0.600 =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한국 타자들

데러울 때 '과연 빠른 공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강정호는 이와 같은 우려를 실력으로 일축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기록 전문 사이트 '브룩스 베이스볼'에 따르면 강정호는 데뷔 첫해부터 직구(포심 패스트볼) 타율 0.394에 홈런 8개로 유독 강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직구를 때려 타율 0.600(10타수 6안타)을 기록 중이다. 복귀 후 안타 9개를 쳤는데 그중 6개가 직구를 때렸을 정도로 빠른 공에 강한 모

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직구를 때려 만든 안타 6개 중 5개가 장타다. 홈런 3개와 2루타 2개 모두 직구를 때려서 만들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도 달라진 강정호에게 직구 승부를 꺼린다.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작년 강정호를 상대한 투수는 직구를 55.7% 던졌다. 올해는 그 비율이 40%까지 줄었다. 또 강정호가 작년까지 93마일(시속 150km) 이상 강속구를 때려 만든 안타가 34.4%였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41.7%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 ‘한 방’ 있는 호랑이 안방이 편해?

원정 경기 승률 3할도 안돼...홈선 8연승 등 5할대 승률  
타율·출루율 높고 선구안도 좋아...피홈런은 원정서 2배

집 나가면 기죽는 호랑이, 안방에서 힘나는 호랑이다. KIA는 18일 두산과의 원정경기까지 홈 18경기, 원정 18경기를 치렀다. 정확히 18경기씩 소화했지만 홈경기, 원정경기의 승률은 많은 차이가 난다. 지난 18일 경기가 우익수 나지완을 필두로 야수진의 실수 연발 속에 5-15패로 끝나면서 KIA는 원정 7연패를 찍었다. 대전 한화전 2연패 뒤, 고척돔 첫 나들이에서 싸늘이 3연패를 당했고 두산에도 연패를 기록했다. 연패 행진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원정 18경기 승률은 5승12패, 0.278까지 떨어졌다. 반면 안방에서는 8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고 있다. 롯데를 상대로 시즌 첫 싸늘이 승을 신고한 뒤, kt에게 2승을 보냈고 지난 주말 한화전에서 다시 한번 싸늘이 행진을 펼치며 홈 연승을 8까지 늘려두었다. 홈경기 승률은 12승6패로 5할이다. 두 얼굴의 '호랑이 군단', 타석에서는 '눈야구'가 다른 성적을 냈다.

■KIA 홈·원정 경기 비교

구분	경기	승	패	세	홈런	실점	평균 자책점
홈	18	12	6	9	11	64	3.26
원정	18	5	13	4	22	112	5.78

  

구분	경기	득점	타점	4구	삼진	타율	출루율
홈	18	100	94	70	113	0.296	0.377
원정	18	92	88	62	149	0.278	0.351

홈에서의 타율(홈 0.296, 원정 0.278)과 출루율(홈 0.377, 원정 0.351)이 더 높지만 장타율은 0.456으로 똑같다. 홈런은 원정길에서 21개를 때려내면서 17개를 기록한 홈경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병살타도 홈에서 15개, 원정 12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볼넷과 삼진 비율이다. 홈경기에서 70개의 볼넷을 골라낸 타자들은 삼진은 113차례 당했다.

원정경기에서는 볼넷 개수가 62개로 줄어 들지만 삼진은 반대로 149개까지 치솟는다. 마운드에서는 '한방'에서 성적표가 달라졌다. 홈 18경기에서 3.26의 평균자책점을 쓴 투수들은 11개의 피홈런을 남겼다. 원정 18경기의 평균자책점은 5.78로 경중 뛰어나온다. 피홈런 개수도 안방보다 두 배인 22개다. 또 두 차례의 불런 세이브와 패전 경기 모두 원정 경기에서 기록됐다. 최영필과 홍건희는 각각 문학과 고척에서 불런 세이브 후 패전투수가 되면서 고개를 숙였다. 5할 승률, 5위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던 KIA는 선두 두산의 집중력에 완패를 당하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좋은 기력을 살려 SK라는 어려운 적을 상대해야 한다. 헥터의 5승 도전도 관심사다. 헥터는 지난 14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9회까지 사사구를 0으로 묶으면서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사상 첫 무사사구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특급 외국인 선수'의 면모를 보인 헥터가 안방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기사회 공제에 불만” 이세돌 9단 탈퇴 의사 밝혀

이세돌 9단이 한국프로기사회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세돌 9단은 지난 17일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식 현장에서 양건 한국프로 기사회장에게 탈퇴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돌 9단의 형인 이상훈 9단도 함께 탈퇴서를 제출했다. 프로기사회는 모든 프로 바둑 기사(320명)가 가입하는 단체다. 프로기사회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돌 9단은 기사회의 일률적인 공제에 불만을 느끼고 탈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회는 회원의 대국 관련 수입 중 3%에서 최대 15%를 공제한다. 해외 기원 주최 기전에서는 수입의 3%, 국내 기전에서는 5%를 떼고, 국내 주최 상금제 대회에서는 수입의 15%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주로 회원들의 복지·지원 기금으로 쓰인다. 상금을 많이 획득하는 기사가 기사회 적립금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구조다. 친목단체인 프로기사회 정관에는 기사회에서 탈퇴하면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일정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세돌 9단은 대국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탈퇴한 후 한국기원 주최 대국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 의향도 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고부(왼쪽부터) 정시우·김나윤·송나영·박연경, 남고부(왼쪽부터) 공시현·정다위·이성준·박준혁.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체고, 전국양궁선수권 동반 우승

주현정(34)과 이득영(27) 등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한 광주체고 양궁부가 제 50회 전국남여양궁총별 선수권대회에서 동반 우승하며 '전통의 양궁 강호'임을 확인시켰다. 광주체고는 지난 18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남·여 고등부 단체전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남·여 동반 우승은 지난 1978년 전남체고 양궁부 창단 이래 처음이라는 게 광주시체육회 설명이다. 남자부에서는 정다위(18·광주체고 2년)가 4관왕을 차지하며 12년 만의 대회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다. 정다위는 50·90m에서 각각 342·334점을 쏘며 금빛 과녁을 명중시킨 데 이어 개인총합(1349점)에서도 김선우(경기체고)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다위는 단체전에서 이성준(19·3년)·공시현(19·3년)·박준혁(18·2년)과 짝을 이뤄 3969점을 쏘 경기체고(3965점)를 누르고 단체전 우승기를 가져오는 데 힘을 보탰다. 광주체고 여자 양궁부도 박연경(17·1년·개인총합 2위)을 비롯, 정시우(18·3년·50m 3위), 김나윤(18·2년)·송나영(18·2년)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10년 만의 대회 단체전 우승기를 가져왔다. 이선미 광주체고 지도자는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